

현대 펑크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손향미 · 박길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unk Fashion

Hyang-Mi Sohn ·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5. 2. 21. 접수)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unk fashion by applying characteristics of modern cultural phenomena.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qualitative study: I analyzed collections from 1996 to 2003 by suggesting an analysis frame based on bibliological studies and applying internet photo materials to the analysis frame. As a result, modern punk fashion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tends to promote things that ar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xpression methods by using the overlapping of texts combined with things that are heterogeneous. Second, the scope of its decoration has been expanded with the aid of the expression method, in which the objects that had not been used as decoration previously have been transformed into media. Third, the appearance of non-mainstream group who has suggested the anti-mainstream thought that violates the uniformed beauty of punk group has expanded the scope of classes that accept the punk fashion. Lastly, clothes, wigs and accessories have been commercialized through the permanent modification that used to signify resistance and disgust such as the expression methods of image replicas using tattoo, piercing, and transformation of hair. In doing so, punk fashion has been generalized and popularized. Such modern punk fashion reflects the change of society such as social transformation that is occupied by images thanks to its complexity and pluralism and the development of public media.

Key words: Punk fashion, Postmodernism, Pastiche; 펑크 패션, 포스트모더니즘, 혼성모방

I. 서 론

복식은 인간에게 입혀져서 인간의 신체와 함께 움직이는 조형으로써, 신체에 입혀진 의복은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정신을 포함하는 표현문화이다. 복식은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며 특히 전쟁, 여가시간의 증가, 여성의 지위상승, 사회계층의 변화, 교육의 증가, 사

회문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세기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인구의 이질성과 유동성이 증대되어 주류권에 속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고, 주류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표현하기 위한 복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다른 주류문화와 구분하고자 하는 하위문화집단이 출현하였다. 하위문화집단은 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park@cnu.ac.kr

른 주류문화나 사회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패션, 헤어 스타일, 화장, 행동 등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외모를 이용하였다(이수인, 박길순, 1999). 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혁신에 가득 찬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는 마법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과 불황, 부정적인 기분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핑크라고 하는 파괴적인 혼란을 일으켰다(Hillier, 1983). 핑크는 기성세대에 항의하는 특정 사상이나 저항감을 표현하기 위한 돌파구였으며,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현대에 들어와 사회전반에 흐르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며 혼성모방되어 모방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해 내게 되었다. 현대 패션 역시 어떤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유행이라는 코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새로움에 대한 욕망과 끝없는 차별성 추구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 전달을 위해 핑크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스타일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여 창의력을 고취시켰으며 고급문화가 지니고 있는 세련미와 우아함이 덧붙여져 더욱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김선영, 임영자, 2001).

그러나 이러한 현대 핑크 패션은 과거에 하위문화로서 갖고 있던 저항의식이나 허무주의적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지 스타일상의 모방만이 존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위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핑크 패션을 현 문화현상의 특징을 적용하여 현대 핑크 패션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핑크 패션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의 핑크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현대 사회 문화현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디자인 창조성과 독창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하나의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먼저 문헌연구에 의하여 분석틀을 제시한 후, 인터넷 사진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포스트모더니즘 양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즉 1996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하였으며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디자이너의 선정은 선행연구(김순자, 1992, 2002; 김현수, 양숙희, 1999; 엄소희, 1988; 장애란, 1998)를 통해 핑크 패션 디자이너로 인정된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디자이너별 작품과 세계 패션에 관한 각종 자료는 물론, 4대 컬렉션의 패션쇼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firstview」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핑크 패션

핑크라는 이름은 핑크 록 음악(punk rock music)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음악과 관련이 많고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영국의 핑크 록은 음악세계에서 볼 때 부르조아적인 소수 스타들에 대한 비난이며 경제불황으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을 대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후반 미국에서 핑크 록은 거칠고 사이키델릭한 감각으로 코드 3개로 된 단순한 로큰롤을 연주했는데 그것은 분노, 니힐리즘, 이질성에 가득 찬 가사와 함께 감각적 소음을 호전적으로 두들기는 형태였다(Jones and Colon-Lugo, 1987). 이들 핑크 록 스타들은 대부분 자기 집 차고에서 연습을 하는 아마추어들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original punk" 혹은 "garage punk"라고 부른다. 70년대 핑크는 뉴욕에서 처음 고개를 내밀었으며 뉴욕 돌즈(New York Dolls)는 핑크 록의 선구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들은 언더그라운드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질적인 핑크의 등장은 1976년 영국의 로큰롤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의해서이며 열광적인 섹스 피스톨즈의 팬 시드 비셔스(Sid Vicious)가 가세한 후 핑크 록은 더욱 확산되었다. 섹스 피스톨즈가 등장할 즈음 영국은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실업 사태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는데 영국의 경우 성인층보다 청소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수당을

받으며 빈둥빈둥 하루를 소일했으며 계급차별이 뚜렷했던 영국에서 이런 노동계급 출신 젊은 청년들이 손쉽게 성공할 길이란 축구 선수나 뮤지션이 되는 것이었다. 섹스 피스톨즈가 선보인 음악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단순한 로큰롤이었으며 영국사회에 대한 불만과 공격이 가득 차 있었다. 섹스 피스톨즈는 이처럼 빈곤과 무기력에 지친 젊은층에게 불을 당겼다.

섹스 피스톨즈는 런던의 킹스 로드(King's Road)의 부띠끄 "Sex"에서 탄생되었으며 이 부띠끄의 주인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이고 이들의 매니저는 말콤 맥라렌이었다. 섹스 피스톨즈의 독특한 매출 신장방법은 철저한 감각주의에 바탕을 둔 충격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은 점잖은 무대를 뒤집어엎고 의자를 객석에 집어던지거나 청중을 향해 침을 뱉었는데 이것은 음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관객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섹스 피스톨즈에서부터 나타난 펑크 록은 기존 사회의 이상인 소수의 부르조아적인 가수에 대한 반항과 영국의 경제불황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존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섹스 피스톨즈가 사라진 후에도 펑크 록이 몰고 온 충격은 예상 이상으로 크고 깊었다.

한편으로 펑크 운동은 히피 낭만주의의 반작용이었다. 이러한 반낭만주의는 Jonny Rottin(건달), Sid Vicious('타락함'이라는 뜻의 그의 이름은 자니의 애완용 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같은 이름에서 나타났고, 히피가 추구한 "평화와 사랑" 대신 펑크는 가학 피학적 변태 성욕의 시각적 의상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반항적인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그들의 슬로건은 "무정부, 희망이 없다. 우리 모두 창녀 창남이다"였다.

이처럼 음악에서 시작된 펑크가 하나의 독창적 스타일로 형성되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Bevis Hillier(1983)는 1960년대가 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혁신이 가득 찬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마법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과 불황, 부정적이 기분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펑크라고 하는 파괴적인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 70년대는 국제 정세의 약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노동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불안은 영국에 이민 온 소수 민족 자녀들에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영국 정부의 인종

차별에 심한 반발을 느낀 영국의 이민 청소년들은 소수 집단의 좌절과 분노를 자신들의 의복 스타일에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간접적인 정치적 항거 운동으로 퍼져나갔다. 또한 영국의 악화된 경제공황은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을 양상하였고 틴에이저들의 힘을 위촉시켜 사회에서 소외시켰다. 많은 노동자 젊은이들은 60년대 하위문화를 뒷받침해 주던 소득이 없어짐에 따라 그들 자신의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을 그들 구매 상품을 통해 개발하기 어려워졌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서 펑크는 기성세대에 항의하는 특정 사상이나 저항감을 표현하기 위한 돌파구가 되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펑크족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허무감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복식을 통해 발산하였고 따라서 보다 더 가시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펑크 패션은 젊은 세대에 의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젊음의 문화가 나타났음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펑크 패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펑크는 '가치 없거나 하급의 것, 똥내기, 젊은 악한,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고어로는 매춘부'를 뜻하고 있다. Dougl's A. Russell(1983)은 "펑크란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나친 메이크업, 의상, 머리염색 그리고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 이름은 Punk Rock music으로부터 왔으며, 스타일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Punk Rock band의 허무주의적인 추종자들에 의해서 입혀졌다"고 언급하였다.

제임스 레이버(1969)는 "펑크 복장은 메저키스틱(masochistic)한 이면을 지니면서 문화 예술을 파괴하는 폭주족(Hell's Angels)들의 오토바이 복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지 가랑이는 사슬로 연결하고 안전핀을 귀와 심지어 코에 까지 꿰었다."라고 펑크 패션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펑크 패션은 반항적이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것에 특징이 있다.

라체희(1986)는 1976년 록 가수들의 의상에서 시

작된 펑크가 기성사회에 반항하는 젊은이에게 표현된 반모우드 현상으로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지만 하이패션계에 새로운 감각으로 신선함을 던져주고 현재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엄소희(1988)는 펑크 패션을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모히칸 족 헤어스타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 폭력적 이미지의 액세서리,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으로써 그들의 근본인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을 극적으로 복식에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장애란(1998)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을 통해 펑크 록이 어떻게 구체적을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찢어진 T-shirts에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문구를 써넣거나 악마스런 문양, 유행하고 있는 문화메시지를 프린트해 사용하였고, 과감한 색채사용, 보디 페인팅, 성적인 부분의 강조로 자극적 향락과 병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구속받지 않고 입고 싶은대로 편하게 입어 파괴적이고 불쾌감을 고의적으로 준 거지의 모습의 그런지 룩으로, 레이어드 룩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펑크 패션을 저항성과 퇴폐성, 혐오성 그리고 예술적인 자유성으로 해석하였다.

김순자(1999)는 기존의 복식관념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복식을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데메스페적인 저항적 펑크, 과격한 저항적 펑크의 히스테리를 유머러스한 해학적 감각으로 대체시킨 post-punk, 부분

염색된 펑크풍 헤어스타일이나 펑크 감각의 액세서리를 통해 장식의 개성화를 추구하는 장식적 펑크, 하이테크 이미지로서의 사이버 펑크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펑크 패션은 진정한 허무주의를 구현하려는 실험정신의 표현이며,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며, 동성애를 주제로, 사회에 대한 저항주의로의 표현으로 파괴적이고 무질서하며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즉 펑크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미의식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기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각을 던져주는 촉매제로서 일반 예술이나 복식에 신선함을 던져준 것이다. 이것은 실로 예술에 있어 모더니즘 만큼이나 패션에서 가치있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다음 <Table 1>은 펑크 패션의 선행연구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복식 등으로 나누어 펑크 패션의 외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펑크 패션은 하위문화로서 갖고 있던 저항의식이나 허무주의적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지 스타일상의 모방이다. 펑크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제거되고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재로서 디자인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채택된 이미지의 시도일 뿐이다. 펑크라는 하위문화에서 보여졌던 파괴와 혼란은 하나의 의미있는 완전체로서 응집되어 있지 만 펑크 이미지만 차용한 것일 뿐이며 그 내부에는 저항이나 거부 같은 어떠한 의미작용도 존재하지 않는 혼성모방된 포스트모던 스타일이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20C 후반의 시

Table 1. 선행연구를 통한 펑크 패션

| 유형 | 외형적 특징 | 상징적 의미 |
|------|--|---|
| 헤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히칸 족 헤어스타일 · 스파이크 헤어 · 머리색 오렌지, 분홍, 초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음, 순수한 생명력 상징 |
| 메이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 멍든 모습, 검은 아이라인 · 검은 점, 문양, 까만 입술 · 드라큐라 화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괴적 양상으로 권위적인 계층에 대한 공격성 표현→해방감 |
| 액세서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물쇠 달린 쇠사슬 목걸이 · 멀티 피어싱 · 안전핀, 반지 · 면도날 · 볼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 고뇌, 삶중의 주관적 감정표현 |
| 의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 플라스틱 팬츠 ·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 모조 표범가죽 · 무질서한 코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공포, 혐오감 반현실적, 반지성적 |

Table 2.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표현기법과 내용

| 표현기법 | 내용 |
|---------|--|
| 텍스트의 중첩 | 스타일의 해체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무 원칙없이 조립하고 결합시키는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 |
| 매체의 변용 | 사물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 소서사의 대두 | 그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중심부로 사용되는 것 |
| 이미지의 복제 | 진정성에 집착하지 않는 아우라의 상실로 이미지가 복제되어 상품화 되는 것 |

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유일하고 체계적인 원칙이나 이론체계가 아니라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잡다한 문화현상들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현숙, 1995).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대표해온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와 장르의 구분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매체의 사용을 가능케 했으며, 나아가 이들을 절충한 다원화된 새로운 스타일들의 창조를 이룩하였다(손향미, 박길순, 2003).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외면상 표현양상에는 과거 스타일의 차용에서 오는 역사성, 여러 스타일을 혼합하는 절충성, 다양한 스타일들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다원성,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매체의 변용, 기계적 복제를 통한 반복된 이미지 나열을 통한 진정성에 집착하지 않는 아우라의 상실을 가져오는 이미지의 복제와 같은 포스트모던 양식의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외면상의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표현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스타일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무 원칙없이 조립하고 결합으로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한다. 둘째, 사물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의 변용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한다. 셋째, 그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소리를 내면서 중심부로 취급되어지는 소서사의 대두를 볼 수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지의 복제를 표현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진정성에 집착하지 않는 아우라의 상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대 문화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보고,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중첩', '매체의 변용', '소서사의 대두', '이미지의 복제'의 4가지 관점에서 현대 핑크 패션을 분석하고자 한다(Table 2).

III. 현대 핑크 패션의 특성

1. 텍스트의 중첩

현대의 핑크 패션 디자이너 작품을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스타일로 수용하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핑크 패션이 가졌던 저항이나 거부의 일관된 의미나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전과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 핑크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2000년 F/W <Fig. 1>에 빼어 로와 같이 하얀 얼굴에 검은 눈썹과 아이라인으로 화장하고, 승마시 말을 속박하기 위해 말에게 행하던 마방굴레를 한 것과 같이 구멍난 가죽띠와 징박한 가죽띠로 입과 팔을 둘러고, 보라색의 새틴 드레스 위에 금속의 띠가 가죽띠와 드레스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녹색으로 염색된 여우 목도리와 기수가 말을 채찍하는 채찍을 들고 있다. 이는 말을 컨트롤하도록 하는 말의 마방굴레를 차용하면서도 마부의 모자와 책적으로 장식하였고, 여성의 고급 드레스와 여우 목도리로 장식하고 있어, 말과 마부, 그리고 여성의 모든 장식들이 하나의 스타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 2>의 장 폴 굴티에(Jean Paul Gaultier)는 그물 스타킹 위에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비키니, 그 위에 여러 가지 뺏지 등 장식된 반쪽 가죽점퍼를 디자인하고 가죽점퍼가 있지 않은 반대쪽 팔에는 사격의 차림으로 장식하였으며, 목에는 작은 스카프가, 과장되지 않은 피부톤에 붉은 입술과 검은 아이라인 화장한 여자 모델이 보여지고 있다. 장 폴 굴티에는 어떠한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스타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2000년 S/S <Fig. 3>에서 크리스찬 디올은 창백한 얼굴, 검은 아이라인, 붉은 불화장을 하고, 고급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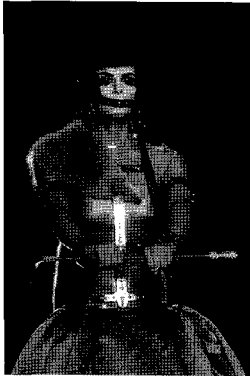


Fig. 1. Christian Dior. 2000 F/W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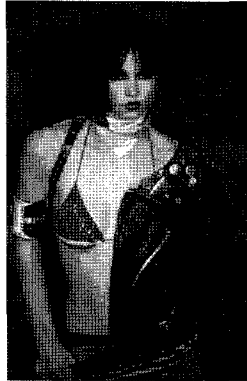


Fig. 2. Jean Paul Gaultier. 2001 S/S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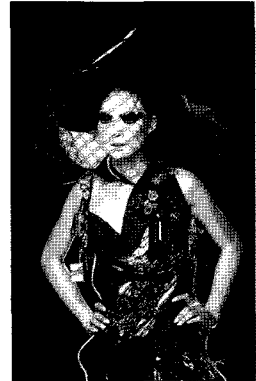


Fig. 3. Christian Dior. 2000 S/S 「firstview」

모자를 쓰고 검은 드레스에 작은 술병 장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핑크 패션 디자이너들의 핑크 패션에서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주제로 이끄는 장식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수많은 부분들의 가능세계들이 하나의 불가능한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핑크 스타일로 수용되면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일관된 의미나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핑크 패션이 가졌던 저항이나 거부 의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가벼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매체의 변용

현대 핑크 패션 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 <Fig. 4>

는 2001년 S/S에서 지퍼를 사용하여 리본의 모양으로 하나의 장식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핑크 패션에서 지퍼는 낡고 구멍난 티셔츠를 말끔히 음악가들이 입었던 티셔츠를 팔려다 하나도 팔리지 않자 화가 나서 티셔츠를 잘랐고 비비안이 이것을 꿰매고 지퍼를 달아 재생한 것을 계기로 핑크 패션에서 유명해졌다(김순자, 2002). 그러나 존 갈리아노는 재생의 의미보다는 과장된 지퍼를 사용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새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2000년 S/S <Fig. 5>에서는 핑크 헤어스타일인 모히칸 헤어스타일에 처키 인형의 얼굴을 머리장식으로 사용하였다.

핑크 족들은 부정적, 방향적 하위문화인 핑크 또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가족재킷, 티셔츠 등에 직접 그려 넣었다(김주영 외, 1997). 이것은 경제불황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권위주의자들에 대



Fig. 4. John Galliano. 2001 S/S 「firstview」



Fig. 5. John Galliano. 2000 S/S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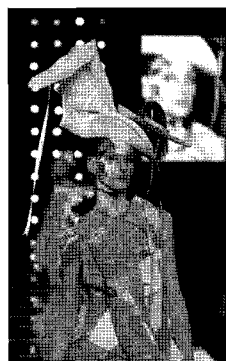


Fig. 6. John Galliano. 2001 S/S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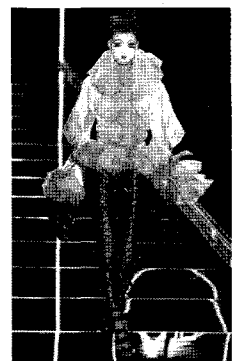


Fig. 7. Christian Dior. 2003 S/S 「firstview」



Fig. 8. Jean Paul Gaultier. 2001 S/S 「firstview」



Fig. 9. Jean Paul Gaultier. 2001 S/S 「firstview」



Fig. 10. Alexander McQueen. 2000 F/W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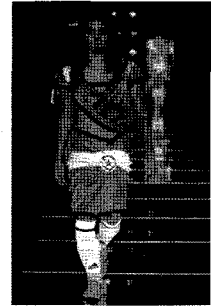


Fig. 11. John Galliano. 2001 S/S 「firstview」

한 조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존 갈리아노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지면을 의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모델의 신체에도 붉은 글씨의 인체체를 페인팅하여 장식하고 있다(Fig. 6).

크리스찬 디올은 2003년 S/S <Fig. 7>에 X자로 묶어 올라가는 가죽 신발끈을 머리장식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핑크 패션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사물 즉 지퍼, 인형의 얼굴, 인쇄매체, 신발끈 등을 핑크스타일의 장식 또는 머리장식 등으로 변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이탈되는 충격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다른 장르에서 사용되던 것들을 변용하여 핑크 스타일에 수용하는 매체의 변용을 표현기법을 사용시 그 사물의 크기, 또는 배열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표현됨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이탈되는 충격적인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매체의 변용은 현대 핑크 패션에 이전과 다른 다양한 장식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장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서사의 대두

포스트모던 스타일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고문문화와 저급문화, 성, 계급, 인종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주부(主部)의 와해 현상으로, 그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것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서사에서 소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서사의 대두가 표현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Fig. 12. Givenchy. 1997 S/S 「firstview」

핑크는 복식에 있어서 부와 관련된 전통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부에 대한 직접적 과시 대신 절제, 간소함, 나아가서는 오히려 빈곤하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이다. 즉 기존의 아름다움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추의 미를 수용함으로써 가난과 불결의 이미지를 통해 가장하는 과시적 빈곤을 말한다(Veblen, 1992).

이민 온 소수 민족 자녀들이 느꼈던 좌절과 분노를 의복스타일에 표현했던 핑크 패션에서 소서사의 대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부르조아의 저항,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등과 같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배제에 대한 새로운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핑크 패션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것들의 양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핑크 패션에서의 미의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현대 핑크 패션에 기존의 고정관념의 미의식이 표현 기법으로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Fig. 8>에서 장 폴 고티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던 핑크 패션에서 중년의 여성 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Fig. 9>에서는 고가의 모피를 핑크 패션의 아이템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Fig. 10>에서 알렉산더 맥퀸은 부의 상징인 다수의 초커를 사용하

고 있으며, 존 갈리아노는 2001년 S/S <Fig. 11>에서 예수의 형상을 현대 핑크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방시는 <Fig. 12>에서 부드러운 금발과 금분을 뿌린 모델과 요정과 같은 모습의 모델, 황금 버팔로를 연상케하는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부르조아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미를 현대 핑크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 핑크 패션에서는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기성세대, 부르조아적, 고정관념적인 미의 기준을 현대 핑크 패션의 미로 새롭게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핑크 패션에서의 소서사의 대두는 핑크 패션에 있어서의 핑크 패션을 수용하는 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이미지의 복제

포스트모던 스타일은 이미지의 복제를 표현기법으로 한다. 현대 핑크 패션에 있어서 이미지의 복제는 저항적 의미의, 혐오스러움을 주던 신체에 영구적으로 변형을 주던 문신, 피어싱, 머리의 형태 등을 일시적, 일회성이 가능한 의복<Fig. 13>, 가발<Fig. 14>,

장신구<Fig. 15> 등으로 이미지를 복제하여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의 복제는 시물라크르(simulacra)로서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이미지가 상품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예술의 아우라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핑크 패션에서 문신, 피어싱, 머리카락의 절단 등을 통해 혐오감이나 저항 등의 의미를 가지던 것들이 의복, 장신구, 가발 등의 상품으로 이미지가 복제됨으로써 그것들이 가진 혐오감이나 저항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제거되어 일부 핑크 계층에서 이루어지던 핑크 장식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가 복제되어 상품화된 의복, 장신구, 가발 등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곳에서나 누구나 착용가능함으로써 순간성과, 동시다발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핑크 이미지의 복제는 핑크 이미지의 상품화로 일반화, 대중화, 동시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 핑크 패션의 표현기법 및 그 의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13. Alexander McQueen. 1997 F/W 「firstview」



Fig. 14. John Galliano. 2000 S/S 「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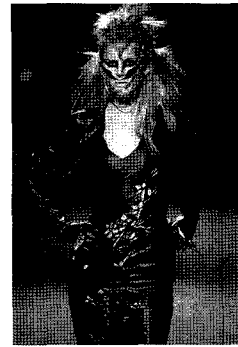


Fig. 15. Alexander McQueen. 1997 F/W 「firstview」

Table 3. 현대 핑크 패션의 표현기법 및 의의

| 표현기법 | 현대 핑크 패션의 내용 | 의의 |
|---------|---|-----------------------|
| 텍스트의 중첩 | · 여성과 남성, 말과 마부의 장식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 | · 가벼움 추구 |
| 매체의 변용 | · 지퍼, 신문, 잡지, 신발끈, 인형의 얼굴 등을 의복 또는 머리장식 등으로 사용 | · 핑크 스타일의 장식 범위 확장 |
| 소서사의 대두 | · 중년의 여성 모델 · 고가의 모피 · 부의 상징인 초커 · 예수의 이미지 · 요정의 이미지 · 금발과 금분, 황금 버팔로의 이미지 | · 핑크 패션의 수용 계층의 범위 확대 |
| 이미지의 복제 | · 일회성이 가능한 의복, 가발, 장신구 | · 대중화, 일반화 |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문화현상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현대 핑크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 핑크 패션의 표현기법은 텍스트의 중첩, 매체의 변용, 소서사의 대두, 이미지의 복제 등 4가지로 집약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핑크 패션은 여성과 남성, 말과 마부의 장식이 하나의 장식으로 수용되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스타일로 수용하는 텍스트의 중첩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핑크 패션이 가졌던 저항이나 거부의 일관된 의미나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전과 다른 새로움으로 가벼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대 핑크 패션은 그동안 장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물 즉 지퍼, 인형의 얼굴, 신문·잡지와 같은 인쇄매체, 신발 끈 등을 의복의 장식 또는 머리장식 등으로 변형하여 수용하는 매체의 변용이 표현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체의 변용을 표현기법으로 하는 현대 핑크 패션은 고정관념에서 이탈되는 충격적인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현대 핑크 패션을 이전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대 핑크 패션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던 핑크 패션에서 중년의 여성 모델을 선보이고, 고가의 모피를 핑크 패션의 아이템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부의 상징인 다수의 초커를 사용하고 예수의 형상을 핑크 패션으로 수용하는 등 소서사의 대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전 핑크 패션에서 거부되던 기성세대, 부르조아적, 고정관념적인 미의 기준을 핑크 패션의 미로 새롭게 수용하는 것이다. 현대 핑크 패션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장식을 수용하는 소서사의 대두는 핑크 패션을 수용하는 계층의 범위 확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대 핑크 패션은 이미지 복제를 표현 기법으로 하여 신체에 영구적 변형을 주어 저항과 혐오스러움을 주던 문신, 피어싱, 머리카락의 절단 등을 순간성이 가능한 의복, 장신구, 가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 핑크 패션에서의 이미지 복제는 신체의 영구적 변형으로 오는 혐오감과 저항의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핑크 패션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미지의 복제는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의 추구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현대 핑크 패션은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대중화, 일반화, 세계화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디자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하나의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영, 임영자. (2001). 오피꾸찌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연구. *복식*, 55(6), 147-165.
- 김순자. (1992). 핑크 패션의 미적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 7, 1-25.
- 김순자. (2002). 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139-164.
- 김옥동. (1990). *포스트모더니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옥동. (1992).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서울: 민음사.
- 김주영, 이정후, 양숙희. (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그래픽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3), 77-89.
- 김현수, 양숙희. (1999). 사이버 핑크 패션의 미의식-시물라크르개념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104-121.
- 라체희. (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복식사전*. (1981). 동경: 문화출판사.
- 손향미, 박길순. (200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8), 981-991.
- 신기철, 신용철. (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 엄소희. (1998).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인, 박길순. (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567-578.
- 이윤주, 이영숙. (1996). 사이버 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6), 57-69.
- 장애란. (1998). 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7), 197-215.
- 정현숙. (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N.Y.: Routledge.
- Douglas, A. Russell.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Co. Ind.

- Harvey, 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구동희, 박영민 옮김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
- Hillier, B. (198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London: The Herbert Press.
- Jameson, F. (1983).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강현두 편 (1998).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 Jencks, C. (1993). *Post-modernism: the new classicism in art and architecture*. 김성곤, 정정호 옮김 (1993). *포스트모던 문화*. 서울: 한신문화사.
- Jones, M., & Colon-Lugo, E. (1987). *Gettton It On*. N.Y.: Abbeville.
- Laver, J. (1969). *A Concis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Thames and Hudson.
- Obalk, H. (1984). Les mouvements de mode, Paris:Robert Raffont.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7, 531.
- Storm, P. (1987). *Func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The Sunday Times, (1985). April 25
- Veblen, T. (1980). *유한계급론*. 이완재, 최세양 옮김 (1992). *한가한 무리들*. 서울: 동일출판사.
- Wilson, E. (1985). *Adorned in dreams*. London: Virago press.